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섣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섣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섣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물가에 배를 매어 두기 좋은 곳.

요약 연대표

표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표기	-	-	-	-	-
섣	-	-	-	-	-
섣	-	-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물가에 배를 매어 두기 좋은 곳.

🕒 문헌의 첫 기록

17세기

📖 수록 용례

9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섞'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물가에 배를 매어 두기 좋은 곳.



섞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섞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섞 사전 표기 요약	—	—	●→	●→	●→	●→
섞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섞
17세기18세기19세기20세기
- 섞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섞, 섞

ㅅ ㅅ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ㅅ 옛 표기와 변화

‘ㅅ’의 옛말인 ‘ㅅ’은 17세기부터 나타난다. 근대 국어 시기에 ‘ㅅ, ㅆ, ㅈ’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ㅅ, ㅆ, ㅈ’가 ‘ㅅ, ㅆ, ㅈ’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20세기에 ‘ㅅ’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ㅅ 문헌 속의 ㅅ

전체 용례 9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7세기 ㅅ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ㅅ

출처 1690 역어유해 하:21ㄴ

용례 01

66 문헌 용례

停泊 비 석세 드다.

ㅅ 현대어 풀이

배가 ㅅ에 들다.

18세기 ㅅ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ㅅ

출처 1778 방언유석 4:4L

용례 02

66 문헌 용례

停泊 비 석세 드다.

現代어 풀이

배가 섶에 들다.

19세기 섶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섶

출처 1887 예수성교전서 388

용례 03

66 문헌 용례

비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여 밀니우는 바 되미 가는 디로 가 한 저근 섬 석세 갓가오니 일흠은 카우다라.

現代어 풀이

배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떠밀리는 바가 되어, 가는 대로 가서 한 작은 섬의 섶에 가까워졌는데 (그 섬의) 이름은 카우다이다.

20세기 섶, 섶 용례 6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섶, 섶

출처 1912 명월정 '58'

용례 04

66 문헌 용례

나 혼주 이 비를 저어갈 수 업고 룯동에 가서 못바리 동모를 얻어 오더리도 사롬 만흔 석세 드러가면.

現代어 풀이

나 혼자 이 배를 저어갈 수 없고 육동에 가서 동료 동무를 얻어 오더라도 사람이 많은 섶에 들어가면.

📖 출처 1912 명월정 '61'

용례 05

66 문헌 용례

통진조강 못 밋쳐 석세 드러서서 물 춤을 기다려 날이 붉으미 쏘 비질하다 보니.

📖 현대어 풀이

통진조강에 못 미쳐 섰에 들어서서 물이 차기를 기다려 날이 밝으매 또 배질하다 보니.

📖 출처 1913 금의쟁성 74

용례 06

66 문헌 용례

증남포에서 비질하여 가다가 히는 저무러 어둑어둑하고 바람은 슬슬 부논디 석스로 슬금어니
디 두며

📖 현대어 풀이

증남포에서 배질하여 가다가 해는 저물어 어둑어둑하고 바람은 슬슬 부는데 섰으로 슬그머니 대어 두며

📖 출처 1913 금의쟁성 219

용례 07

66 문헌 용례

턴향으로 비가 급한 파도를 버셔져 석세 드러오니다.

📖 현대어 풀이

전향으로 배가 급한 파도를 벗어나 섰에 들어왔다.

📖 출처 1913 금의쟁성 412

용례 08

66 문헌 용례

일조를 덩하고 가는 비와는 달라 가다가도 바람 불면 석세 드러가셨다가 바람이 그친 후에 갈
것이오.

📖 현대어 풀이

일자를 정하고 가는 배와는 달리 가다가도 바람 불면 섰에 들어가셨다가 바람이 그친 후에 갈 것이고.

66 문헌 용례

섯.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섯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섯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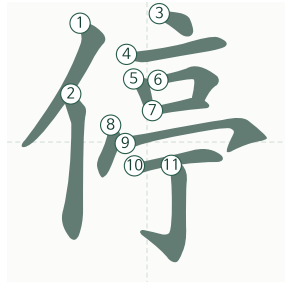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停

뜻·음 머무를 정

총 11획 · 부수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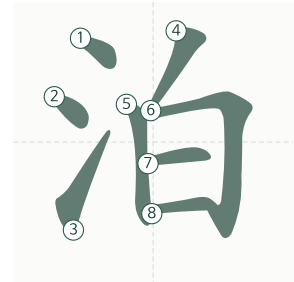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停/

泊

뜻·음 머무를·배달 박

총 8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泊/